

‘추가시간 실점’ 광주FC, 최하위 대전에 연승 달미

전반 5분 만에 베카 골...대전 후반 23분·49분 ‘극장골’로 1-2 역전 패 이정호 감독 “이기려는 마음에 마무리·패스 아쉬워...베카 상승세 큰 힘”

광주FC가 베카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역전 패를 당했다. 광주는 지난 22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최하위 대전하나시티즌과의 K리그1 18라운드 경기에서 1-2패를 기록했다. 전반 5분 만에 베카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후반 23분 천성훈에게 동점골을 내준 광주는 후반 종료 직전 터진 송창석의 ‘극장골’에 아쉬움을 삼켰다. 17라운드 김천상무와의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연승에 성공한 광주는 지난 19일 부천FC와의 코리아컵 3-2승리를 더해 최상의 분위기로 대전을 찾았다. 시작도 좋았다. 5분 만에 베카가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엄지성이 박스에서 머리로 공을 때내 베카 앞에 공을 떨쳤다. 베카가 오른쪽으로 시원한 슈팅을 선보였고, 이내 공은 대전 골대 왼쪽 모서리를 뚫었다. 일찍 선제골을 만든 광주는 61%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전반전을 이끌었지만 아쉽게 추가골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후반 들어 대전은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광주 공

락에 나섰다. 그리고 후반 23분 대전 천성훈의 오른쪽이 광주 골대를 갈랐다. 왼쪽 측면에서 배서준이 밀어준 공을 받은 천성훈이 문전에서 오른쪽 슈팅을 날렸다. 광주 ‘수문장’ 김경민이 몸을 날렸지만, 공에 살짝 미치지 못하면서 실점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21일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영입한 천성훈의 대전 데뷔전에서 나온 골이었다. 이후 두 팀의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됐고, 후반 40분 광주 박태준에 시선이 쏠렸다. 김천상무전에 이어 부천과의 코리아컵에서 연달아 득점을 기록했던 박태준이 문전에서 흘러나온 공을 받아 오른쪽 슈팅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공은 골대 옆으로 살짝 휘어져 나가고 말았다. 이어진 대전의 공격에서 김경민이 윤도영의 슈팅을 품에 안으면서 실점을 저지했지만, 후반 49분 마지막 공세를 막지 못했다.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지면서 막판까지 숨막히

는 접전이 이어졌다. 그리고 앞서 김경민의 수비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던 윤도영이 송창석의 골을 도왔다.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넘어왔고, 윤도영이 머리로 문전에 있던 송창석을 향해 공을 넣었다. 송창석은 왼발 발리슈팅을 선보였고 잠시 후 광주 골망이 흔들거렸다. 레안드로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빠지면서 후반 34분 투입됐던 송창석은 ‘극장골’ 주인공이 돼 지난 17라운드 포항전을 통해 다시 대전 지휘봉을 든 황선홍 감독에게 첫승을 안겨줬다. 3연승에 실패한 이정호 감독은 “전반전 경기를 주도했을 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마무리 터치, 패스가 아쉬웠다. 그러다 보니 쫓기는 마음에 후반에 힘들었다. 대전 선수들의 이기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결과가 따르지 않아서 선수들이 힘들어 할 것 같다.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하겠다. 뭇 날씨에도 원정 와서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쉬움 속에서도 베카의 상승세는 다음 경기 구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정호 감독은 “베카의 몸이 올라온 상태이고 경기,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좋다. 끝까지 기록해서 자신감 얻었을 것 같다.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베카(99번)가 지난 22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5분 골을 기록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호날두, 골 대신 도움...포르투갈 유로 2024 16강 진출

튀르키예에 3-0 승 호날두 도움 8개 기록 대회 최다 도움 공동 1위

포르투갈이 골 욕심을 버리고 도움을 선택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의 이타적인 플레이를 앞세워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포르투갈은 23일 열린 튀르키예와의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3-0 대승을 거뒀다. 2연승 한 포르투갈(승점 6)은 튀르키예(1승 1패-승점 3), 체코(1무 1패-승점 1-골 득실 -1), 조지아(1무 1패-승점 1-골 득실 -2)를 제치고 F조 1위에 올랐다. 특히 3위 체코와 승점 차를 5로 벌려 조지아와의 조별리그 최종전 결과에 상관 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 16강 진출권을 따내고 유로 2016 우승 이후 8년 만의 챔피언 탈환을 향해 순항했다. 포르투갈은 전반 21분 왼쪽 측면에서 누누 멘데스(파리 생제르맹)가 투입한 크로스가 수비수 맞고 페널티지역 정면으로 흐르자 쇠도하던 베르나르두 실바(맨체스터 시티)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 결승골을 뽑았다. 7분 뒤에는 행운의 자책골로 승기를 굳혔다. 전반을 2-0으로 마친 포르투갈은 후반 10분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호날두가 후방에서 날아온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으로 쇠도한 뒤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며 결정적 득점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호날두는 반대편에서 달려온 브루누 페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스했고, 페르난데스는 가볍게 오른쪽 슈팅으로 쐬기골을 넣었다. 유럽축구연맹(UEFA)에 따르면 1도움을 추가한 호날두는 유로 대회에서 개인 통산 8도움을 기록, 카렐 포보르스키(체코·8개)와 함께 역대 유로 대회 최다 도움 공동 1위에 올랐다. 유로 대회 개인 통산 최다 득점자(14골)이기도 한 호날두는 최다 도움 기록까지 보태며 자신이 보



유로 2024 튀르키예와의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득점에 성공한 브루누 페르난데스와 포옹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

유한 역대 유로 대회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을 22개로 늘렸다. F조의 다른 경기에서는 체코와 조지아가 한 골씩 주고받는 공방 끝에 1-1로 비겼다. 두 팀은 나란히 1무 1패를 기록했지만, 골 득실에서 앞선 체코가 조 3위에 랭크됐다. E조 2차전에서는 벨기에가 루마니아를 2-0으로 꺾었다. 1차전에서 슬로바키아에 0-1로 패했던 벨기에에는 이번 대회 첫 승리를 따내며 16강 진출의 희망을 살려냈다. 이로써 E조는 2차전까지 루마니아(골 득실 +

1), 벨기에(골 득실 +1), 슬로바키아(골 득실 0), 우크라이나(골 득실 -2-이상 승점 1) 4개국이 모두 1무 1패를 거둬 16강 티켓의 향방은 최종전에서 결정하게 됐다. 벨기에에는 루마니아와 승점과 골 득실이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1골 뒤져 조 1위를 내렸다. 벨기에에는 이날 루마니아를 상대로 전반 2분 만에 로멜루 루카쿠(로마)의 도움을 받은 유리 탈레만스(에스턴 빌라)의 선제골이 터진 뒤 후반 34분 케빈 더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의 추가골로 승리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권순우, 파리 올림픽 간다...2회 연속 출전

권순우(370위)가 7월 말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테니스 남자 단식 출전권을 확보했다. 권순우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파리 올림픽 테니스 남자 단식 출전권은 지난 10일 자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위 56명이 단식 본선 출전권을 갖게 되며 한 나라에 최대 4명이 나갈 수 있다. 권순우는 현재 세계 랭킹이 300위 대지만 부상에 따른 보호 랭킹(Protected Ranking) 80위가 적용된다. 10일 세계 랭킹 발표 시점에는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예비 명단에 있던 권순우는 이후 앞순위에 있던 선수들이 일부 빠지면서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다. 현재 권순우 다음 순번이었던 81위 지주 베리스(벨기에)까지 올림픽 출전을 확정했다. 이로써 권순우는 2021년 도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나가기 됐다. 도쿄에서는 단식 1회전에서 탈락했다. 권순우를 지도하는 유다니엘 코치는 최근 “이달 초 대구에서 열린 국제테니스연맹(ITF) 대구국제남자대회에 출전했다가 발목을 다쳤다”고 권순우의 최근 몸 상태를 설명하며 “7월 1일 개막하는 워



블턴에 출전한 뒤 올림픽 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클레이코트 대회를 뒤통을 찌르고 밝혔다. 한국 테니스는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형택 이후 2012년 런던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에는 올림픽 출전 선수를 배출하지 못했다. 올해 파리 올림픽 테니스 경기는 프랑스오픈이 열렸던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톨랑가르소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신유빈·임종훈, WTT 라고스 혼합복식 우승

중국 3-0 완파 신유빈(대한항공)과 임종훈(한국거래소)이 월 드테이블테니스(WTT) 라고스 2024에서 혼합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유빈-임종훈 조(세계랭킹 2위)는 22일(현지 시간)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쉬후이아오-뤄제칭 조(랭킹 없음)를 3-0(11-4 11-9 11-4)으로 완파했다. 신유빈과 임종훈은 1세트 시작부터 연속 5득점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2세트에서는 9-5로 앞서다 내리 3실점 하며 쫓

겼다. 신유빈과 임종훈이 다시 한 점 도망가자 중국도 곧바로 따라붙어 10-9가 됐고, 한 점 차 상황에서 한국이 마지막 포인트를 가져오며 상대 추격을 뿌리쳤다. 신유빈과 임종훈은 3세트 초반 내리 6득점 해 8-2까지 앞섰고, 이후 또 연속 3득점으로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임종훈(34위)은 남자 단식 준결승에서는 독일의 리카르도 발터(101위)에게 2-3(11-5 14-12 5-11 10-12 8-11)으로 역전패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메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